

# 해남·영광 정수장 시설 개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환경부, 노후정수장 개량 공모사업 선정...영광군, 제2정수장 개선 해남군,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과 동시 추진

해남·영광지역 수돗물 품질이 대폭 개선된다.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가운데 하나인 ‘2020 노후정수장 개량 공모사업’에 2개 군이 최종 선정되면서다.

해남군은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해남정수장을 현대식으로 개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남군민의 식수원인 해남정수장은 지난 1980년 건설, 40년이 지나면서 시설물이 노후화됐다. 구조물 안정성은 물론 수질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

이에 명현관 해남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우선 배정을 건의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해남군은 설명했다.

해남군은 앞서 군비 8억7000만원을 들여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과 동시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31억원 규모로 낡은 수도관을 교체·정비

하는 내용이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해남읍을 비롯한 송지면, 황산면, 문내면 일원 노후상수관로 105km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상수관망은 지난 1983년 설치된 해남읍을 비롯해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화돼 누수량이 증가하고 여름철 녹물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해남정수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해남읍 일부를 비롯한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일원 5915세대(1만1310명)에 이전보다 품질이 개선된 수돗물(일 4000㎥)을 공급받게 된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끝나면 현재 누수율이 42%에 달했던 것이 15%까지 줄어들고, 녹물 현상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해남군은 기대하고 있다.

영광군의 경우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은 2020년~2023년까지(4년간) 총 220억원(국비 110, 군비 110)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된다. 영광군은 공사 중에도 급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현재 시스템을 이용한 무중단 공사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의 조기착수를 위



명현관 해남군수가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해남군제공>

해 지난해 임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정수장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우리 군 인구 절반 가량이 거주하는 영광읍 급수를 책임지고 있는 영광 제2정

수장의 개량을 통해 수돗물의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무안군, 5월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소농직불금 농가당 연 120만원

무안군은 올해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신청을 5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 목적으로 추진된다. 기존 쌀·밭작물,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돼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1~0.5ha(약 300~1500평) 이하인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기준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약 4700평) 미만, 농촌 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등 3단계로 구분, 지급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신청 분산을 위해 마을별로 시기를 나눠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끊없는 해양쓰레기...신안군, 200t급 정화운반선 건조

### 해수부 지원사업 선정 사업비 48억원 확보

신안군이 섬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해 200t급 정화운반선을 건조한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섬지역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내년까지 200t급 정화운반선을 건조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2020년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사업’에 선정돼 4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정화운반선은 기존 유류공급 엔진이 아닌 환경친화적 추진방식인 복합 전기추진 기관을 탑재하고, 작은 도서와 무인도도 접근이 가능토록 차도선 형태로 건조된다.

바다면적 1만2654㎢로 서울시 대비 22배의 광활한 면적을 지니고 있는 신안군에서는 해마다 어구와 스티로폼, 페트병 등 국내·외 해양쓰레기 5000여t이 유입돼 해양생태계 파괴, 해양경관 훼손, 양식장 등에 2~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해 말 기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11억), 수거·처리사업(4억), 태풍피해 복구사업(10억) 등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4100여t을 처리했지만 매년 1000여t은 처리하지 못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신안군 자은도 외기해변에 폐어구·페비닐·물병 등 쓰레기들이 떠밀려와 있다. <신안군 제공>

특히 낙도와 무인도는 접근성 및 수거 작업여건이 어려워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적체되면서 해양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신안군은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 정화운반선 건조에 운영에 들어가면 해안가에 쌓여있는 쓰레기 처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운반선에 굴착기와 트렉터 등 장비를 추가로 갖춰 정화선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해남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 훼손·식별 어려운 번호판 교체

해남군은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해 6월까지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건물번호판 3만7884개로 망실,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해남군과 14개 읍·면 담당에서 조사반을 편성, 일제 조사한다. 정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사진 찍어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해남군은 훼손됐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은

도로명주소법 제16조 2항에 따라 재교부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연 훼손 및 식별에 문제가 있는 건물번호판은 군에서 일괄 제작·교체하기로 했다.

해남군은 앞서 지난해 조사된 4475개의 건물번호판을 올해 3월까지 무상 제작·교체한 바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일제 조사를 통해 낡은 건물번호판을 정비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찾기가 더 쉬워지고 마을 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제 조사를 위한 건물번호판의 사진 촬영 협조와 빛바랜 건물번호판을 사진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진도군, 코로나19 피해 대응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사업 추진

### 생활 방역단 등 일자리 80개

진도군은 진도형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실직자와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군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을 앞두고 3억 5000만원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 80개를 만들었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이다. ▲청정 진도 생활 방역단 ▲생활환경 개선 사업단 등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코로나 19 방역 활동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참여자는 주 15~30시간 등 근로시간에 따라 월 67만원에서 134만원까지 임금을 받는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형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으로 단기 일자리 시장 안정과 고용상 피해를 본 군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과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등에 총 107억원을 투입, 코로나 19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